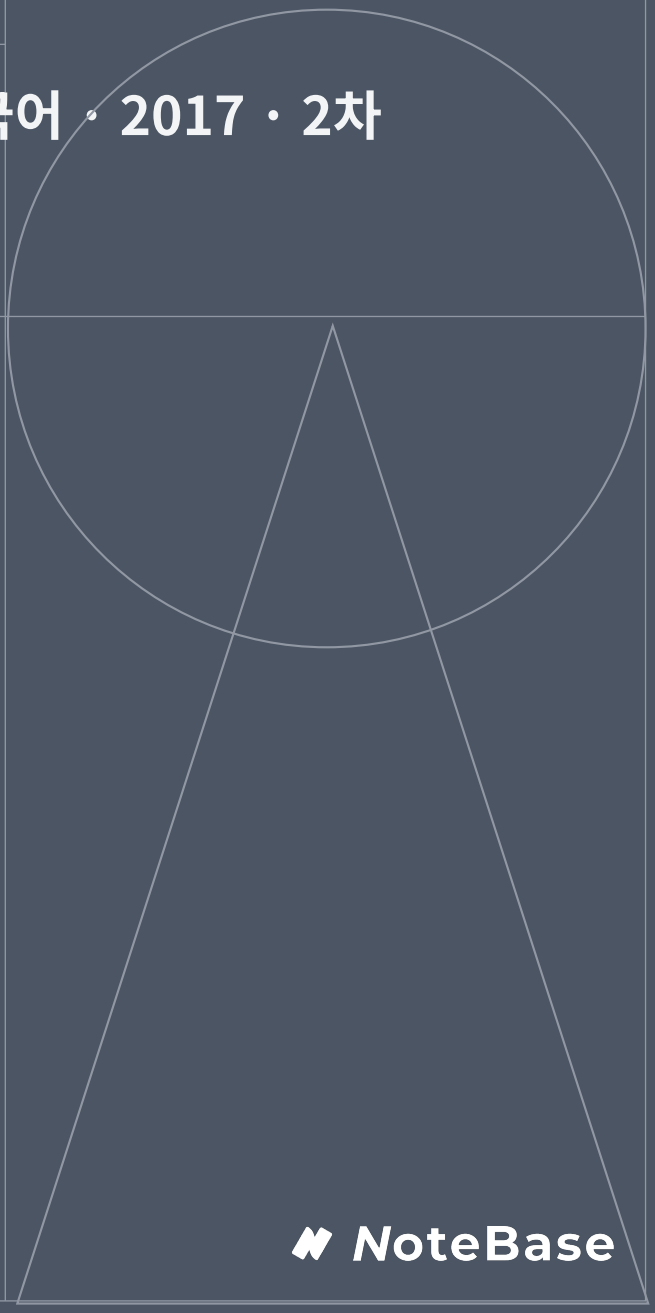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7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7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국어 · 2017 · 2차

문 1. 다음 <보기> 중 밑줄 친 단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사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
㉡ 그것은 그가 할 따름이죠.
㉢ 우리가 할 만큼은 했어.
㉣ 선생님 한 분이 새로 오신대요.

①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②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뉜다.
③ 사물의 수량을 가리키는 양수사와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로 나뉜다.
④ 실질적 의미가 희박한 형식성 의존 명사와 수량 등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로 나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밑줄 친 '것, 따름, 만큼, 분'이 모두 의존 명사임을 파악하고, 의존 명사의 하위 분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문장에서 쓰일 수 있는 명사이다.
형식성 의존 명사는 실질적 의미가 희박한 의존 명사로, 이 문장의 '것, 따름, 만큼'이 이에 해당한다.
단위성 의존 명사는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사람을 세는 '분'이 이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은 대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말들은 대명사가 아니라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 쓰이는 의존 명사이다.
② X —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나뉜다'는 명사의 다른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말들은 자립성에 따라 분류할 때 의존 명사에 해당하며, 이 문항에서는 다시 형식성 의존 명사와 단위성 의존 명사로 구별된다.
③ X — '양수사와 서수사로 나뉜다'는 수사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말들은 수사가 아니라 의존 명사이다.
④ O — '것, 따름, 만큼'은 실질적 의미가 희박한 형식성 의존 명사이고, '분'은 사람의 수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명사에 관한 설명이라는 점 때문에 정답처럼 보이지만,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 성격과 하위 분류를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③의 '양수사'와 '서수사'는 수사의 구분이므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 '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의 꾸밈 없이 홀로 쓰이기 어려운 명사인지 먼저 확인한다. 의존 명사라면 실질적 의미가 희박한 '것·따름·만큼'류인지, 수량의 단위를 나타내는 '분·명·개'류인지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것·따름·만큼'은 형식성 의존 명사, '분'은 단위성 의존 명사이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국어의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형사와 부사는 뒤에 오는 다른 말을 꾸며 주기 때문에 수식언이라 한다.

②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것으로 '그러나, 그런데' 등과 같은 것이 있다.

③ 감탄사는 화자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대답을 나타내며 형태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④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말로서, 격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가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어의 품사 분류에서 수식언·독립언·관계언의 기능과 접속 부사의 분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수식언은 다른 말을 꾸미는 관형사와 부사이고, 독립언은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문법 관계를 맺지 않는 감탄사이다. 관계언인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한다. 학교 문법의 품사 체계에는 별도의 '접속사'가 없으며, '그러나·그런데'처럼 앞뒤 내용을 이어 주는 말은 부사 가운데 접속 부사로 분류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꾸미므로 둘은 수식언에 속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접속사'이다. 학교 문법에서 접속사는 독립된 품사가 아니며, '그러나·그런데'는 문장이나 내용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올바르게는 '접속 부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며, 그러나·그런데 등이 있다'이다.
③ O — 감탄사는 부름·느낌·놀람·대답 등을 나타내는 독립언이며 활용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④ O —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관계언이며, 격 조사·접속 조사·보조사로 나뉜다.

오답 포인트

②의 '문장과 문장을 이어 준다'라는 기능 설명만 보면 맞는 듯하지만, 문제의 함정은 품사 명칭인 '접속사'에 있다. 기능이 접속이라고 해서 품사도 접속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나·그런데'의 품사는 부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품사 문제에서는 말의 기능과 품사 명칭을 분리해 판단한다. '그러나·그런데·따라서'처럼 앞뒤 내용을 잇는 말이 나오면 접속 기능을 하는 부사, 즉 접속 부사인지 확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그러나·그런데’는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이다.

NoteBase

문 3. 다음 한자어와 한글 독음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尿素 - 요소

② 匿名 - 익명

③ 理髮 - 이발

④ 雙龍 - 쌍용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한자어의 정확한 독음과 두음 법칙의 적용 위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두음 법칙은 한자음 '녀·뇨·뉴·니'나 '랴·려·례·료·류·리' 등이 단어 첫머리에 올 때 각각 '여·요·유·이'나 '야·여·예·요·유·이'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러나 해당 음절이 단어 첫머리가 아니면 원래 음가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尿素는 '요소'로 읽는다. 尿의 본음 '뇨'가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 '요'가 된다.
② O — 匿名은 '익명'으로 읽는다. 匿은 '익', 名은 '명'이므로 표기가 적절하다.
③ O — 理髮은 '이발'로 읽는다. 理의 본음 '리'가 단어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 '이'가 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쌍용'이다. 雙龍에서 龍은 단어의 둘째 음절이므로 본음 '룡'을 유지하여 '쌍룡'으로 읽는다.

오답 포인트

'용'이라는 표기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④를 맞다고 보기 쉽다. 龍이 단어 첫머리에 오면 '용'이 되지만, 雙龍처럼 단어 내부에 오면 '룡'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의 본음을 확인한 뒤 그 음절이 단어 첫머리인지 살핀다. 첫머리이면 두음 법칙을 적용하고, 단어 내부이면 원래 음가를 유지하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첫머리의 龍은 '용', 단어 내부의 龍은 '룡'이다. 따라서 龍은 '용'이지만 雙龍은 '쌍룡'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보기>에 대한 문법적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영선: 냉장고에 토마토 ㉠재워 놨다. 먹어.
철이: ㉡깨우면 돼?
영선: 뭘?
철이: 개그가 ㉢안 통하네.
영선: 뭐? ㉣자는 거 먹어. 눈치 ㉤못 채게.

① ㉠은 '눈이 감기며 의식 없는 상태가 되어 활동하는 기능이 쉬는 상태로 되다.'를 뜻하는 '자다' 동사의 피동사이다.

② ㉡은 '잠이나 술에서 깨다'를 뜻하는 '깨다' 동사의 사동사이다.

③ ㉢과 ㉤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표현이다.

④ ㉣은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동 표현의 형성과 부정 표현의 의미, 문맥에 따른 동사의 의미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표현이다. '자다→재우다', '깨다→깨우다'에서는 사동 접미사 '-우-'가 쓰인다.
'안' 부정은 문맥에 따라 단순히 상태나 사실을 부정하거나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고, '못' 부정은 능력 부족이나 외부 사정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X — ㉠ '재워'의 기본형 '재우다'는 '자다'에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하여 '자게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사동사이다. 틀린 표현은 '피동사'이며, 올바르게는 '사동사'이다.
② O — ㉡ '깨우면'의 기본형 '깨우다'는 '잠이나 술에서 깨다'의 '깨다'에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한 말로, '깨게 하다'라는 뜻의 사동사이다.
③ X — ㉢ '안 통하네'는 개그가 통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순 부정이고, ㉤ '못 채게'는 눈치를 챌 수 없도록 한다는 능력 부정이다. 틀린 표현은 '㉢과 ㉤은 의지 부정'이며, 올바르게는 '㉢은 단순 부정, ㉤은 능력 부정'이다.
④ X — ㉣ '자는'은 주체가 잠을 자는 동작을 나타내지만, ㉠ '재워'는 다른 대상을 자게 하는 사동의 뜻을 나타낸다. 틀린 표현은 '동일한 의미'이며, 올바르게는 '㉣은 자는 동작, ㉠은 자게 하는 동작을 나타낸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재우다’가 ‘자다’와 형태와 의미상 관련된다는 점만 보고 피동사로 판단하거나, ‘안’을 언제나 의지 부정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사동은 남에게 동작을 하게 하는 표현이고, 부정 표현의 세부 의미는 문장 속 주체와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동사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붙었을 때에는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하게 하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안’과 ‘못’은 각각 단순·의지 부정인지, 능력·상황상의 불가능인지 문맥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자다→재우다, 깨다→깨우다는 사동이고, ‘안’은 사실·의지의 부정, ‘못’은 능력·상황의 부정이다.

NoteBase

문 5. 다음 우리말의 역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근대 국어 시기에 방점 표기 및 'ㆁ'과 'ㅿ'이 문자 체계에서 사라진다.

② 고대 국어의 향가에서는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은 분명히 확인되며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③ 중세 국어 시기에 '뫼, 그롬'은 각각 한자어 '산(山), 강(江)'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고유어가 눈에 띄게 없어지고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존칭의 호격 조사 '하', 인칭법 및 대상법 선어말 어미 '-오/우-', 높임법 선어말 어미 '-시-'(주체 높임법), '-ᄉᆞᆸ-, -ᄌᆞᆸ-, -ᅀᆞᆸ-'(객체 높임법), '-이-'(상대 높임법) 등이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고대·중세·근대 국어의 표기, 높임법, 어휘 변화가 각각 어느 시기에 나타났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대 국어는 향찰 자료를 통해 높임법과 한자어의 영향을 살필 수 있고,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 문헌을 통해 높임 표현과 고유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대 국어로 오면서 방점과 옛 문자가 실제 표기 체계에서 사라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선지별 해설

① O. 근대 국어 시기에는 성조를 표시하던 방점이 쓰이지 않게 되고, 옛이응 'ㆁ'과 반치음 'ㅿ'도 문자 체계에서 사라진다.
② O. 향가에서는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요소가 확인되지만, 청자를 직접 높이는 상대 높임은 자료의 성격상 뚜렷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③ X. 틀린 부분은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향을 '중세 국어 시기'의 현상으로 한정한 것이다. 고유어와 한자어가 경쟁하여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향은 고대 국어 시기, 특히 통일 신라 때부터 두드러졌으며, 중세 국어 문헌에는 '뫼'와 'ㄱ·ㄹ·ㅁ' 같은 고유어가 여전히 나타난다. 올바르게는 '고대 국어 시기부터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중세 국어에는 존칭 호격 조사 '하', 인칭법·대상법의 '-오/우-', 주체 높임의 '-시-', 객체 높임의 '-ᄉᆞᆸ-, -ᄌᆞᆸ-, -ᅀᆞᆸ-', 상대 높임의 '-ᄋᆞ ㅣ-' 등 현대 국어와 다른 문법 요소가 나타난다.

오답 포인트

③은 '뫼·ㄱ·ㄹ·ㅁ'과 '산·강'의 대응 자체가 아니라 변화의 시기를 바꾸어 놓았다. 중세 국어에도 해당 고유어가 실제로 쓰였다는 점을 놓치면 정답을 고르기 어렵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어사 선지는 현상과 시기를 따로 확인한다. 향찰과 높임법은 고대 국어, 훈민정음 문헌의 다양한 높임 표현과 고유어는 중세 국어, 방점·옛 문자의 소멸은 근대 국어의 핵심 단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대에는 한자어의 영향이 커지고, 중세에는 옛 높임 표현과 고유어가 확인되며, 근대에는 방점 · ㆁ · ㅿ이 사라진다.

NoteBase

문 6.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철이는 아이가 아니다.
㉡ 영선이는 엄마와 닮았다.
㉢ 철이는 영선이를 사랑한다.
㉣ 철이가 영선이에게 편지를 보냈다.

① ㉠에서 '아이가 아니다'는 서술절이다.

② ㉡에서 '엄마와'는 부사어이지만 생략하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③ ㉢에서 '사랑하다'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④ ㉣에서 부사어 '영선이에게'와 목적어 '편지를'의 위치를 바꾸면 ㉣은 비문(非文)이 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과 서술어의 자릿수를 정확히 구분하고, 조사에 따라 문장 성분의 위치를 바꾸어도 문법적인 문장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술절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서술어 구실을 하는 절이다.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부사어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그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수이며, 서술어 자체는 자릿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어는 조사가 문장 성분의 문법적 기능을 밝혀 주므로 문장 성분의 순서를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아이가 아니다'가 서술절이라는 부분이다. '아니다'는 주어와 보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므로, ㉠에서 '철이는'은 주어, '아이가'는 보어, '아니다'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 아니라 홑문장이다.
② O — '닮았다'는 닮음의 상대를 나타내는 성분을 반드시 요구한다. 따라서 ㉡의 '엄마와'는 부사격 조사 '와'가 붙은 필수적 부사어이며, 이를 생략하면 '영선이는 닮았다'가 되어 필요한 성분이 빠진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랑하다'가 세 자리 서술어라는 부분이다. '사랑하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은 주어 '철이는'과 목적어 '영선이를'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서술어 자체는 자릿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두 성분의 위치를 바꾸면 비문이 된다는 부분이다. '철이가 편지를 영선이에게 보냈다'로 바꾸어도 '편지를'의 목적격 조사와 '영선이에게'의 부사격 조사가 각 성분의 기능을 밝혀 주므로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에서는 '아이가 아니다'에 주어처럼 보이는 '아이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술절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아니다' 앞의 '아이가'는 보어이다. ③에서는 서술어까지 자릿수에 세어 세 자리로 판단하기 쉽고, ④에서는 한국어의 어순을 고정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성분을 찾고, 그 성분의 수만으로 서술어의 자릿수를 센다. '되다·아니다' 앞의 '이/가' 성분은 보어인지 확인하고, 어순을 바꾼 문장은 조사가 각 문장 성분의 기능을 유지하는지 살펴본다.

암기 포인트

'아니다' 앞의 이/가 성분은 보어, '닮다'의 상대는 필수적 부사어, '사랑하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NoteBase

문 7. 다음 <보기>에서 사이시옷에 대한 표기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만을 고른 것은?

<보기>
㉠ 대가 (○) / 댓가 (×) (代價)
㉡ 초점 (○) / 촛점 (×) (焦點)
㉢ 뒤풀이(○) / 뒷풀이(×)
㉣ 아래층(×) / 아랫층(○)
㉤ 해님 (×) / 햇님 (○)

① ㉠㉡
② ㉡㉣
③ ㉢㉣
④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사이시옷을 적는 합성어의 조건과 한자어 합성어·거센소리 앞·접미사가 붙은 말의 예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이시옷은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할 때 적는다.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은 원칙적으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으며,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만 예외이다.
뒷말이 거센소리 ㅋ·ㅌ·ㅍ·ㅊ로 시작하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고, 접미사 '-님'이 붙은 파생어에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따라서 ㉠ 대가/댓가와 ㉡ 초점/촛점의 표시는 바르고, ㉢ 뒤풀이/뒷풀이의 표시도 바르다. 반면 ㉣은 아래층(○)/아랫층(×), ㉤은 해님(○)/햇님(×)으로 표시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은 모두 바르게 표시되었다. ‘대가(代價)’와 ‘초점(焦點)’은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이고 여섯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가’, ‘촛점’으로 적지 않는다.
② X — ㉡은 바르지만 ㉣이 틀렸다. ‘층’은 거센소리 ㅊ으로 시작하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틀린 ㉣의 표시는 ‘아래층(×)/아랫층(○)’이고, 올바르게는 ‘아래층(○)/아랫층(×)’이다.
③ X — ㉢은 바르지만 ㉣이 틀렸다. ‘풀이’는 거센소리 ㅍ으로 시작하므로 ‘뒤풀이’가 맞고 ‘뒷풀이’는 틀리지만, ㉣은 올바르게 ‘아래층(○)/아랫층(×)’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과 ㉤이 모두 틀렸다. ㉣은 ‘아래층(○)/아랫층(×)’이 맞다. ㉤의 ‘해님’은 ‘해’에 접미사 ‘-님’이 붙은 파생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으며, ‘해님(○)/햇님(×)’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 ‘뒤풀이’도 바른 표기이지만, 이를 포함한 3번 선지에는 표시가 틀린 ㉣이 함께 들어 있다. 또한 실제 발음만 따라 ‘촛점’, ‘아랫층’, ‘햇님’처럼 적으면 합성어의 구성과 뒷말의 첫소리, 접미사 결합 여부를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한자어끼리의 결합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뒷말이 거센소리나 이미 된소리로 시작하는지 살핀다.
마지막으로 ‘-님’처럼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인지 확인하면 사이시옷 표기를 판단할 수 있다. 복수 항목을 묶은 선지는 포함된 항목이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를 X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가·초점은 한자어라 ㅅ이 없고, 뒤풀이·아래층은 거센소리 앞이라 ㅅ이 없으며, 해님은 접미사 ‘-님’ 앞이라 ㅅ이 없다.

NoteBase

문 8. 다음 중 어법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②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한다.

③ 글을 잘 쓰려면 신문과 뉴스를 열심히 시청해야 한다.

④ 철이는 영선이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그 보답으로 철이에게 책을 선물하였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문장 성분과 서술어의 호응, 주어의 명확성, 단어의 의미에 맞는 서술어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문장에서는 하나의 성분을 둘 이상의 서술어와 연결할 때 각 서술어가 요구하는 조사가 모두 맞아야 한다. 또한 생략된 주어가 누구인지 분명해야 하며, 대상에 어울리는 서술어를 사용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때는'은 화제가 되는 시기를 제시하고, '바야흐로'는 '이제 한창'이라는 뜻으로 봄의 시기적 상황을 강조한다. 문장 성분의 호응과 의미가 자연스럽다.
② X — 틀린 부분은 '자연에'를 '복종하다'와 '지배하다'에 함께 연결한 것이다. '복종하다'는 '자연에 복종하다'처럼 부사격 조사 '에'를 요구하지만, '지배하다'는 '자연을 지배하다'처럼 목적격 조사 '을/를'을 요구한다. 올바르게는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자연을 지배하기도 한다.'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신문과 뉴스'를 모두 '시청해야 한다'에 연결한 것이다. 신문은 읽는 대상이고 뉴스는 시청하는 대상이므로 서술어를 구분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글을 잘 쓰려면 신문을 열심히 읽고 뉴스를 열심히 시청해야 한다.'이다.
④ X — 뒤 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가방을 받은 영선이가 아니라 앞 절의 주어인 철이가 계속 행동한 것처럼 읽히므로 의미가 불분명하다. 보답의 주체를 밝혀 '철이는 영선이에게 가방을 주었는데, 영선이는 그 보답으로 철이에게 책을 선물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서로 다른 조사를 요구하는 두 서술어를 한 성분에 묶은 데 함정이 있고, ③은 서로 다른 행동의 대상을 하나의 서술어로 처리한 데 함정이 있다. ④는 문맥만으로 행위자를 짐작하지 않고 생략된 주어가 문법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서술어에 질문을 붙여 필요한 조사를 확인하고, 접속된 문장에서는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은지 살핀다. 대상마다 요구되는 행동이 다르면 서술어도 각각 밝혀야 한다.

암기 포인트

복종은 '에', 지배는 '을/를'과 호응하며, 신문은 읽고 뉴스는 시청한다. 주체가 바뀌면 주어를 밝혀 쓴다.

NoteBase

문 9. 다음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계 3위의 갑부(甲富)는 과연 누구일까?

② 그분은 청년들의 애환(哀歡)을 감싸 주고 위로해 주었다.

③ 공무원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④ 김 부장의 사위는 훤칠한 키에 폭넓은 교양을 갖춘 재원(才媛)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한자어의 사전적 의미가 문장의 대상·서술어와 자연스럽게 호응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갑부(甲富)는 첫째갈 만큼 큰 부자를, 애환(哀歡)은 슬픔과 기쁨을 함께 이른다. 불편부당(不偏不黨)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당파에 기울지 않는 태도이고, 재원(才媛)은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를 뜻한다. 어휘의 뜻만 맞는 것이 아니라 함께 쓰인 대상과 서술어까지 자연스러워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갑부'는 첫째갈 만큼 큰 부자를 뜻하므로 '재계 3위'와 의미상 어울리지 않는다. '재계 3위의 갑부'는 '재계 3위의 부자'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X — '애환'은 슬픔뿐 아니라 기쁨까지 아우르는 말이므로 '감싸 주고 위로해 주었다'와 온전히 호응하지 않는다. '청년들의 슬픔을 감싸 주고 위로해 주었다' 또는 '청년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O — '불편부당'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공무원이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문맥에 알맞다.
④ X — '재원'은 재주가 뛰어난 젊은 여자를 뜻하므로 남자인 '사위'를 가리킬 수 없다. '김 부장의 사위는 훤칠한 키에 폭넓은 교양을 갖춘 인재이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애환'을 단순히 '슬픔'으로만 이해하거나 '재원'을 성별과 관계없는 '인재'로 이해하기 쉽다. 또한 '갑부'의 '첫째갈 만큼 큰 부자'라는 뜻을 놓치면 '재계 3위'와의 충돌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밑줄 친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뒤, 그 뜻이 수식어·대상·서술어와 모두 호응하는지 확인한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성별이나 신분 같은 사용 범위도 함께 점검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갑부는 첫째갈 큰 부자, 애환은 슬픔과 기쁨, 불편부당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음, 재원은 재주 있는 젊은 여자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철이는 키가 장대만큼 크다.

②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뿐이다.

③ 영희는 합리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다.

④ 볼펜, 연필, 지우개 따위를 문구류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사와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그리고 명사형 어미 '-기' 뒤에 붙는 조사의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기보다'에서 '-기'는 용언을 명사형으로 만드는 어미이고 '보다'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며, 그 뒤의 보조사 '는'도 붙여 '-기보다는'으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만큼'은 체언 '장대' 뒤에서 정도나 한도를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장대만큼'으로 붙여 쓴다.
② O — '뿐'은 체언 '너' 뒤에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너뿐이다'로 붙여 쓴다.
③ X — 틀린 부분은 '합리적이기 보다는'이다. '보다'는 명사형 어미 '-기' 뒤에 붙는 조사이고 '는'도 보조사이므로, '영희는 합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다.'로 고쳐 쓴다.
④ O — '따위'는 앞에 열거한 사물을 낮잡거나 한데 묶어 가리키는 의존 명사이므로 '지우개 따위'처럼 앞말과 띄어 쓰고, 조사 '를'은 붙여 '따위를'로 쓴다.

오답 포인트

③의 '-기 보다는'을 '-기' 뒤에서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조사 '보다'와 보조사 '는'이 차례로 붙으므로 '-기보다는'이 맞다. 반대로 ④의 '따위'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 뒤의 말이 조사이면 붙이고 의존 명사이면 띄어 쓴다. 특히 비교 구문 '-기보다', '-기보다는'은 한 덩어리로 표기하고, 열거 뒤의 의존 명사 '따위'는 앞말과 띄어 쓴다.

암기 포인트

조사 '만큼·뿐·보다·는'은 붙이고, 의존 명사 '따위'는 띄어 쓴다.

NoteBase

문 11. 다음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패가 길거리에 ㉠궁싯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 마리나 사면 족할 이 ㉡축들을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츱츱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귀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 생원은 기어코 동업의 조 선달을 나꾸어 보았다.

① ㉠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고
② ㉡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
③ ㉢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
④ ㉣ 곤충의 한 종류.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쓰인 낯선 고유어의 사전적 의미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궁싯거리다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는 것을 뜻한다. 축은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나 무리를 뜻한다. 츱츱스럽다는 보기에 너절하고 염치없는 데가 있다는 뜻이며, 이 글에서는 파리 떼가 성가시고 귀찮게 날아드는 모습을 나타낸다. 각다귀는 각다귀과의 곤충을 가리키며,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 '궁싯거리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는 모습을 뜻하므로 적절하다.
② O — ㉡ '축'은 일정한 특성에 따라 나누어지는 부류를 뜻한다. 문맥에서는 장터에 남아 있는 장사꾼 무리를 가리키므로 적절하다.
③ X — ㉢ '츱츱스럽게'를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라고 풀이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보기에 너절하고 염치없는 데가 있게'라는 뜻이며, 이 문맥에서는 파리 떼가 매우 귀찮고 성가시게 날아드는 모습을 나타낸다.
④ O — ㉣ '각다귀'는 각다귀과의 곤충을 뜻하고, 남의 것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므로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라는 풀이를 문맥상 그럴듯한 부사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츱츱스럽게'는 정확성과 관계없는 말이며, 파리 떼의 너절하고 성가신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낯선 어휘는 앞뒤 문장에서 그 말이 꾸미는 대상과 상황을 먼저 확인한다. '파리 떼가 츱츱스럽게 날아든다'에서는 정확성보다 귀찮고 성가신 상태가 자연스러우므로 ③의 풀이를 배제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궁싯거리다=머뭇거리다, 축=부류·무리, 츱츱스럽다=너절하고 염치없다, 각다귀=곤충·남의 것을 뜯어먹는 사람이다.

NoteBase

문 12. 1930년대 한국 문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 시기에 발표된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은 신소설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였다.

② 이 시기에는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으며,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많은 문인들이 친일적인 작품을 쓰거나 붓을 꺾었다.

③ 김기림, 정지용 등의 시인들은 감성보다 지성, 리듬보다 이미지에 호소하는 주지주의 경향을 바탕으로 한 시를 창작하였다.

④ 이 시기의 시는 3.1 운동의 좌절로 인한 허무와 패배 의식의 영향으로 감상적·퇴폐적 낭만주의 경향을 보였으며, 황석우, 홍사용, 박영희 등이 대표적이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1930년대 한국 문학의 대표 경향을 다른 시기의 문학적 특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910년대에는 이광수의 「무정」으로 대표되는 계몽적 근대소설이 나타났다. 1920년대 초에는 3·1 운동의 좌절과 관련된 감상적·퇴폐적 낭만주의가 유행했다. 1930년대에는 김기림·정지용 등을 중심으로 지성과 이미지를 중시하는 모더니즘 시가 전개되었다. 일제의 민족어 말살 정책과 문인에 대한 친일 강요가 극심해진 시기는 주로 일제 말기인 1940년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이 시기에 발표된'이다. 이광수의 장편소설 「무정」은 1930년대가 아니라 1917년에 발표되어 1910년대 계몽적 근대소설을 대표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일제의 탄압과 민족어 말살 정책이 극에 달해 문인들이 친일 작품을 쓰거나 붓을 꺾은 때를 1930년대 전반의 특징처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일제 말기인 1940년대 문학의 특징이다.

③ O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인인 김기림과 정지용 등은 감정의 직접적 표출보다 지성을, 운율보다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주지주의적 시를 창작하였다.

④ X
틀린 표현은 '이 시기'이다. 3·1 운동의 좌절에서 비롯된 허무와 패배 의식, 감상적·퇴폐적 낭만주의, 황석우·홍사용·박영희 등은 1930년대가 아니라 1920년대 초 문학의 특징이다.

오답 포인트

각 선지는 실제 문학사적 사실을 제시하면서 시대만 바꾸어 놓았다. 특히 ②의 일제 말기 문학과 ④의 1920년대 초 낭만주의를 1930년대의 모더니즘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작가·경향을 연대 표지와 연결한다. 「무정」은 1910년대, 감상적 낭만주의는 1920년대 초, 김기림·정지용의 모더니즘은 1930년대, 민족어 말살과 친일 강요는 1940년대의 흐름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1910년대 「무정」, 1920년대 초 감상적 낭만주의, 1930년대 지성·이미지의 모더니즘, 1940년대 민족어 말살과 친일 강요이다.

NoteBase

문 13. 「단군신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을 찾을 수 있다.

② 이 신화를 통해 우리 신화의 원형과 당시 사회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

③ 이 신화는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천지 창조 신화이다.

④ 환웅과 웅녀가 결합하여 시조인 단군이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천손에 의해 건국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단군신화」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고, 건국 신화와 천지 창조 신화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의 탄생과 건국을 설명하는 건국 신화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과 곰에서 인간이 된 웅녀의 결합, 홍익인간의 이념 등을 통해 천손 의식과 당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낸다. 천지 창조 신화는 세상이나 우주가 처음 생겨난 과정을 설명하는 신화이므로 「단군신화」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환웅이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려 했다는 내용에서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을 찾을 수 있다.
② O — 환웅의 하강, 웅녀의 변신과 단군의 탄생이라는 신화적 구조에서 우리 신화의 원형을 살필 수 있고, 풍백·우사·운사와 곡식·생명·질병 등을 다스렸다는 내용에서 당시의 농경 사회적 성격도 파악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천지 창조 신화'이다. 「단군신화」는 천지나 우주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신화가 아니라 고조선의 시조 탄생과 국가 건립을 설명하는 건국 신화이다.
④ O — 천상 존재인 환웅과 웅녀의 결합으로 단군이 태어났다는 계보는 단군을 하늘의 후손으로 보는 천손 의식과 고조선 건국의 신성성을 드러낸다.

오답 포인트

③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라는 앞부분은 맞지만, 이를 '천지 창조 신화'라고 규정한 부분이 틀렸다. 국가의 시작을 설명하는 건국 신화와 세계의 시작을 설명하는 천지 창조 신화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화가 무엇의 시작을 설명하는지 확인한다. 시조의 탄생과 국가의 성립이 중심이면 건국 신화이고, 하늘과 땅 또는 우주의 생성이 중심이면 천지 창조 신화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이며, 핵심은 홍익인간·천손 의식·농경 사회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가)와 (나)의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장정일,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NoteBase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① (가)의 시는 (나)의 시를 패러디 한 작품이다.

② (가)의 시 2연에 나오는 '전파'는 (나)의 시 2연에 나오는 '꽃'과 대응한다.

③ (가)의 시는 현대 사회의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시는 (가)의 시에 비해 발랄하고 감각적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장정일의 시가 원작의 표현과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현대인의 사랑을 풍자하는지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패러디는 기존 작품의 표현이나 구조를 가져와 새 맥락으로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방식이다. (나)는 이름을 불러 주는 행위를 통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서정적으로 드러낸다. (가)는 이를 '단추-라디오-전파'로 바꾸고, 필요할 때만 끄고 켤 수 있는 사랑을 제시하여 현대인의 편의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비판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나)의 연 구성과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서 '이름을 불러 줌-몸짓-꽃'을 '단추를 누름-라디오-전파'로 변형하므로 (나)를 패러디한 작품이다.
② O — 두 시의 2연에서 '전파'와 '꽃'은 모두 화자의 행위를 계기로 대상이 화자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결과를 나타내므로 서로 대응한다.
③ O — (가)의 마지막 연에 제시된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사랑은 상대를 자신의 필요와 편의에 따라 대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④ X — (나)가 (가)보다 '발랄하고 감각적'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실제로는 라디오의 단추를 누르고 끄고 켜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가)가 더 발랄하고 감각적이며, (나)는 존재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소망을 서정적이고 관념적으로 표현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두 작품의 전체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만 보고 분위기까지 같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름·꽃·빛깔·향기'의 서정적 표현과 '단추·라디오·전파·버튼'의 현대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이 만드는 분위기는 다르다. 특히 ④는 두 작품의 분위기를 거꾸로 제시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패러디 작품은 원작과 반복되는 구조, 바뀐 핵심 소재, 변형으로 새롭게 생긴 주제를 차례로 대조한다. 이 문제에서는 (나)의 '이름-꽃-의미 있는 관계'가 (가)의 '단추-라디오-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관계'로 바뀐 점이 판단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나)는 이름을 불러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사랑이고, (가)는 단추로 끄고 켜는 편의적 사랑에 대한 풍자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鳥獸哀鳴海岳顰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은 찡그리네.
槿花世界已沈淪 무궁화 세계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구나.
秋燈掩卷懷千古 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역사를 생각하니,
難作人間識字人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 하기 어렵구나.
-황현, 「절명시」

① 이 시는 『매천집(梅泉集)』에 실려 있다.
② '새'와 '짐승', '강산'은 시인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③ 역사의 시련을 맞이한 지식인의 진정 어린 고뇌가 나타난다.
④ 고려 멸망의 소식을 접하고 순절(殉節)한 황현이 자결을 앞두고 쓴 시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황현의 「절명시」가 쓰인 역사적 배경과 시어에 나타난 표현 및 화자의 태도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명시」는 황현이 1910년 일제의 국권 침탈로 나라를 잃은 현실을 슬퍼하며 순절하기 전에 남긴 한시이다. '새와 짐승', '강산'까지 슬퍼하고 찡그린다고 표현하여 망국의 비통함을 자연물에 이입하고, '글 아는 사람 노릇 하기 어렵다'는 구절로 지식인의 책임과 고뇌를 드러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절명시」는 황현의 문집인 『매천집』에 수록된 작품이다.
② O — '새와 짐승은 슬피 울고 강산은 찡그리네'라는 표현은 자연물에 화자의 슬픔을 이입하여 망국의 비통함을 드러낸다.
③ O — '세상에서 글 아는 사람 노릇 하기 어렵구나'에는 나라를 잃은 시대에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진정 어린 고뇌가 나타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고려 멸망'이다. 황현은 고려 멸망이 아니라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 피탈을 맞아 자결을 결심하고 이 시를 썼다.

오답 포인트

④는 '순절한 황현이 자결을 앞두고 쓴 시'라는 뒷부분은 맞지만, 시대적 배경을 '고려 멸망'으로 바꾸었다. 황현은 고려 말 인물이 아니라 조선 말·대한제국기의 지식인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가와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연결한 뒤 시어를 확인한다. 황현·「절명시」는 1910년 국권 피탈과 순절에 연결되고, 자연물의 슬픔과 '식자인'의 탄식은 각각 망국의 비애와 지식인의 고뇌를 뜻한다.

암기 포인트

황현의 「절명시」는 고려 멸망이 아니라 1910년 국권 피탈에 대한 지식인의 순절과 고뇌를 담은 작품이다.

NoteBase

문 16. 윗글의 서술 방식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고 보면 문학 속에 비친 집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나는 문학이라는 명경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칫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진실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의 이면들, 세태의 흐름을 좇다가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본래의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려 했다. 그 속에는 집에 대한 이해, 가치와 사고방식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묻힌 시약처럼 정직하게 녹아들어 있었으니, 문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집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문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은 내 가슴 어느 한군데 발아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흩뿌려졌다가 어느 날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인연이 닿는 집 안 어느 구석에 제법 향기 짙은 꽃으로 피어나기도 한다. 설계를 하면서 나는 '이 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벽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묻는다. 매번 묻지만 대뜸 답할 만큼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하늘에 묻고, 땅에 묻고, 사람에 묻다 보면, 그 틈새마다 수많은 시인이 내 가슴속에 뿌려 놓았던 씨앗들이 저마다 움트느라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그 수런거림이 굳건한 동기가 되고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 어느새 건강한 집 한 채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된다.
늘 다짐하는 말이지만, 현실에 뿌리내린 문학적 상상력 없이 어찌 방다운 방 하나를 제대로 구축해 낼 수 있겠는가? 모양이야 그럴듯하게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순으로 그득한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며 전망하여, 마침내 '삶의 형식과 내용'까지 재구성해 내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길동무가 되어 주고 깊이를 더해 가며 교제할 만한 맞상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겐 건축과 함께할 만한 문학이 있어 괴롭고, 슬프고, 고맙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 우여곡절의 한복판에서 내 딴에는 집다운 집의 진면목을 살펴보느라 늘 여념이 없다. 그 둘 사이야말로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부박하기 그지없는 세태를 거스르며 삶의 지표를 부단히 증거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문학과 건축의 동상이몽! 그 둘을 곱게 접어, '그 자리, 그런 집'이 뚜렷이 찍힌 데칼코마니를 완성하고 싶다.

① 문학과 건축 간의 대조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문학과 건축의 관념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사례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건축과 문학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있다.

④ 문학과 건축 간의 비교를 통해 두 대상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글에 실제로 사용된 서술 방식과 그 효과를 연결해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히 문학과 건축을 대립시키는지, 공통된 지향을 지닌 관계로 비교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핵심 개념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나란히 놓아 공통점이나 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이고, 대조는 서로 다른 점이나 반대되는 속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문학에서 얻은 교훈이 건축 설계의 동기와 토대가 된다고 설명하고, 문학과 건축을 '도반', '길동무', '운명 공동체'로 제시한다. 따라서 두 대상의 차이보다 상호 관계와 공통된 지향이 중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대조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이다. 글은 문학과 건축을 반대되는 대상으로 놓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며 같은 길을 가는 관계로 비교한다. 올바르게는 '문학과 건축의 공통된 지향과 긴밀한 관계를 비교를 통해 드러낸다'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관념성을 강조'이다. '명경', '씨앗', '꽃', '기초와 기둥', '도반' 등의 비유는 문학적 교훈이 건축으로 구현되는 과정과 두 대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올바르게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문학이 건축에 미치는 영향과 두 대상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다'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사례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건축과 문학의 개념을 명료화'이다. 글에는 특정 건축물이나 문학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사례가 제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자신의 설계 경험과 수사적 질문을 활용해 건축에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낸다'이다.
④ O — 글은 문학과 건축을 비교하면서 두 대상이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며 삶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고, 부박한 세태를 거슬러 삶의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방향을 밝힌다.

오답 포인트

문학과 건축이라는 서로 다른 대상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①의 '대조'를 고르면 안 된다. 글의 핵심 표현인 '같은 길을 가는 도반', '길동무', '운명 공동체'는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과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또한 비유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②를 고를 수 없으며, 비유의 실제 효과가 '관념성' 강조인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 방식 문제에서는 먼저 글에 해당 방식이 실제로 쓰였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선지에 제시된 효과가 글의 중심 내용과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서로 다른 두 대상이 나와도 차이를 부각하면 대조이고, 공통점·관련성·상호 작용을 부각하면 비교이다.

암기 포인트

문학과 건축은 대립하는 대상이 아니라 같은 길을 가며 삶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는 동반자이다.

NoteBase

문 17. 윗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고 보면 문학 속에 비친 집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나는 문학이라는 명경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칫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진실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의 이면들, 세태의 흐름을 좇다가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본래의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려 했다. 그 속에는 집에 대한 이해, 가치와 사고방식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묻힌 시약처럼 정직하게 녹아들어 있었으니, 문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집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문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은 내 가슴 어느 한군데 발아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흩뿌려졌다가 어느 날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인연이 닿는 집 안 어느 구석에 제법 향기 짙은 꽃으로 피어나기도 한다. 설계를 하면서 나는 '이 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벽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묻는다. 매번 묻지만 대뜸 답할 만큼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하늘에 묻고, 땅에 묻고, 사람에 묻다 보면, 그 틈새마다 수많은 시인이 내 가슴속에 뿌려 놓았던 씨앗들이 저마다 움트느라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그 수런거림이 굳건한 동기가 되고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 어느새 건강한 집 한 채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된다.
늘 다짐하는 말이지만, 현실에 뿌리내린 문학적 상상력 없이 어찌 방다운 방 하나를 제대로 구축해 낼 수 있겠는가? 모양이야 그럴듯하게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순으로 그득한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며 전망하여, 마침내 '삶의 형식과 내용'까지 재구성해 내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동무가 되어 주고 깊이를 더해 가며 교제할 만한 맞상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겐 건축과 함께할 만한 문학이 있어 괴롭고, 슬프고, 고맙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 우여곡절의 한복판에서 내 딴에는 집다운 집의 진면목을 살펴보느라 늘 여념이 없다. 그 둘 사이야말로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부박하기 그지없는 세태를 거스르며 삶의 지표를 부단히 증거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문학과 건축의 동상이몽! 그 둘을 곱게 접어, '그 자리, 그런 집'이 뚜렷이 찍힌 데칼코마니를 완성하고 싶다.

① 지은이는 건축 설계를 할 때 문학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

② 문학적 소양을 갖추면 보다 질 높은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삶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④ 문학과 건축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글에 직접 제시된 내용과 문맥상 가능한 추론을 구별하고, 문학과 건축의 관계를 지은이의 관점에 맞게 이해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지은이는 문학에서 얻은 교훈과 상상력이 건축 설계의 동기와 바탕이 된다고 본다. 문학과 건축은 서로 깊이를 더하며 삶의 지표를 드러내는 동반자 관계이지만, 두 분야의 표현 방식과 추구 대상이 같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은이는 문학이 가슴속에 뿌린 씨앗들이 설계의 동기와 배경이 되어 집의 기초와 기둥이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건축 설계에서 문학의 영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O — 지은이는 현실에 뿌리내린 문학적 상상력 없이는 방다운 방을 제대로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다. 문학적 소양이 더 나은 건축 설계에 기여한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③ O — 지은이는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며 전망하여 삶의 형식과 내용까지 재구성하려면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④ X — 틀린 부분은 문학과 건축이 '표현 방식'과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두 공통적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글은 문학이 일상의 진실과 현상의 이면을 성찰하게 하고, 그 교훈과 상상력이 건축 설계에 구현되어 두 분야가 서로 길동무가 된다고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문학과 건축이 동일한 표현 방식과 추구 대상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학이 건축에 통찰과 상상력을 제공하며 두 분야가 상호 보완한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공통적이다'는 글의 '같은 길을 가는 도반', '운명 공동체'라는 표현을 두 분야의 속성이 동일하다는 뜻으로 확대한다. 글의 중심은 문학과 건축의 동일성이 아니라 문학이 건축에 영향을 주고 두 분야가 서로 깊이를 더하는 관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서술어가 본문에 직접 근거하는지 확인한다. 본문의 '영향을 줌·상호 보완함'을 선지에서 '본질이나 목적이 같음'으로 바꾸었다면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문학은 건축의 상상력과 통찰의 바탕이며, 두 분야의 관계는 동일성이 아니라 상호 보완성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보기> 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시어가 적절하게 짝 지어진 것은?

<보기>
까마득한 날에
( )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 )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 )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曠野)」

① 땅 - 국화 - 영웅(英雄)
② 하늘 - 매화 - 영웅(英雄)
③ 땅 - 국화 - 초인(超人)
④ 하늘 - 매화 - 초인(超人)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육사의 「광야」 원문과 시상 전개를 바탕으로 생략된 시어를 순서대로 찾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첫 연의 '하늘'은 천지개벽의 원초적 시간을, 넷째 연의 '매화 향기'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홀로 지키는 절개와 희망을, 마지막 연의 '초인'은 먼 미래에 광야에서 민족의 이상을 실현할 존재를 나타낸다. 원문의 순서는 '하늘-매화-초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땅-국화-영웅'은 세 시어가 모두 원문과 다르다. 올바르게는 '하늘-매화-초인'이다.

② X
'하늘-매화'는 맞지만 마지막의 '영웅'이 틀리다. 올바른 시어는 '초인'이다.

③ X
마지막의 '초인'은 맞지만 앞의 '땅-국화'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하늘-매화'이다.

④ O
각 괄호에 원문대로 '하늘', '매화', '초인'을 넣으면 시의 원초적 과거에서 현재의 시련을 거쳐 미래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맞는다.

오답 포인트

'땅'은 '하늘'과 짝을 이루는 자연물이고 '국화'와 '영웅'도 문학 작품에서 자주 쓰이는 시어이므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 문항은 유사한 상징어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광야」의 정확한 원문을 묻는다. 특히 '백마 타고 오는' 존재는 '영웅'이 아니라 '초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빈칸을 따로 추측하지 않고 '하늘이 처음 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는 원문의 핵심 구절을 한 묶음으로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광야」의 세 시어는 '하늘-매화-초인', 시상은 '원초적 과거-시련의 현재-희망의 미래'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빈 괄호 속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지막 편견. '이민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기는커녕 일꾼이 부족한 일자리를 채워 준다. 더구나 건축업이나 서비스업은 '수출'할 수도 없다. 인재가 재산인 나라 대한민국은 곧 인재가 부족한 나라가 된다.
(중략)
국제 연합의 통계를 보면 미국은 2050년에도 중간 나이가 41.1세인 젊은 나라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같은 해 중간 나이가 53.9세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미국의 비결은 간단하다. 이민이 미국을 젊게 한다. 우리도 발상을 바꾸면 된다. 일본도 최근 필리핀 출신 이민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노인들은 아픈데 간호할 사람이 없고, 어쩌겠는가? 독일도 1960년대 외국 인력 교체 순환 정책을 썼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반발했다. 숙련공을 내보내고 미숙련공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민자들이 정착할 길이 열렸다.
그렇다고 독일이 혼란에 빠졌다거나 독일인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후문은 없다. 오히려 일꾼이 문화까지 들어오니 ( ) 아니겠는가? 이주 노동자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① 一刀兩斷
② 一魚濁水
③ 一望無際
④ 一擧兩得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빈칸 앞의 '일꾼이 문화까지 들어오니'라는 문맥을 바탕으로, 한 가지 일에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의 한자 성어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一擧兩得(일거양득)은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문맥에 해당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一刀兩斷(일도양단)은 한 칼로 두 동강을 내듯이 일을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처리한다는 뜻이다. 빈칸에는 결단을 뜻하는 一刀兩斷이 아니라 두 가지 이익을 뜻하는 一擧兩得이 들어가야 한다.
② X — 一魚濁水(일어탁수)는 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린다는 말로, 한 사람의 잘못이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뜻이다. 빈칸에는 한 사람의 폐해를 뜻하는 一魚濁水가 아니라 두 가지 이익을 뜻하는 一擧兩得이 들어가야 한다.
③ X — 一望無際(일망무제)는 한눈에 바라보아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아득하고 넓다는 뜻이다. 빈칸에는 공간이 끝없이 넓음을 뜻하는 一望無際가 아니라 두 가지 이익을 뜻하는 一擧兩得이 들어가야 한다.
④ O — 一擧兩得(일거양득)은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민자를 받아들여 일꾼을 확보하는 동시에 문화까지 받아들인다는 문맥과 정확히 맞는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이 모두 '一'로 시작하므로 글자 모양만 보고 고르면 혼동하기 쉽다. 빈칸 앞의 '일꾼'과 '문화'가 두 가지 이익으로 병렬되어 있다는 점이 결정적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주변에서 결과가 몇 개인지 확인한다. 하나의 행동으로 서로 다른 두 효과나 이익을 얻는 문맥이면 一擧兩得을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한 번 들 거(擧), 두 가지 얻을 득(得): 한 가지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 것이 一擧兩得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한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미국 정부는 기밀( ) 자료가 유출( )된 정황을 인지( )하자마자 곧바로 유출자 색출( )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① 記密 - 類出 - 認知 - ☒出
② 記密 - 類出 - 認智 - 索出
③ 機密 - 流出 - 認知 - 索出
④ 機密 - 流出 - 認智 - ☒出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정확한 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기밀·유출·인지·색출을 각각 機密·流出·認知·索出로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핵심 개념

機密은 외부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비밀, 流出은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흘러나감, 認知는 어떤 사실을 알아차림, 索出은 샅샅이 찾아냄을 뜻한다. 따라서 네 단어는 機密－流出－認知－索出로 표기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記密의 '記'와 類出의 '類', ☒出의 '☒'가 틀렸다. 올바른 표기는 각각 機密, 流出, 索出이다. 認知만 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② X
記密의 '記', 類出의 '類', 認智의 '智'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機密, 流出, 認知이며, 索出만 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③ O
機密은 '기밀', 流出은 '유출', 認知는 '인지', 索出은 '색출'의 뜻과 음에 맞는 표기이다. 네 한자어가 모두 바르다.

④ X
認智의 '智'와 ☒出의 '☒'가 틀렸다. '알아차리다'라는 뜻의 인지는 認知, '찾아내다'라는 뜻의 색출은 索出로 쓴다. 機密과 流出은 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한자음이 같거나 글자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단어의 뜻에 맞는 한자를 골라야 한다. 특히 '인지'의 知를 智로, '색출'의 索을 ☒로 바꾼 표기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어를 한 글자씩 소리만 맞추지 않고 전체 뜻으로 확인한다. '비밀'은 機密, '흘러나감'은 流出, '앎'은 認知, '찾아냄'은 索出이라는 의미 연결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밀 機密, 유출 流出, 인지 認知, 색출 索出이다.

NoteBase